



DVD Limited Edition

[Back to Last page](#)

Transcribed by mirager.

Translation from Korean to English by teether (Yesol).

Translation from English to Chinese by Furen.

Translation copyright 2007 King and the Clown Unofficial Fansite; Please link back to this website (wang-ui-namja.com) or (king-and-the-clown.com) if used elsewhere.

『왕의 남자(King and the Clown)』 Audio Commentary - Actors

〈王的男人〉旁述音軌 - 演員篇

Actors Commentary Part 12

맹인이 되어 줄에 오르는 장생.

Blind Jang-saeng climbs the rope.

失明的长生爬上了绳子。

이준기: 이날, 이거 찍고 탈진 했었는데.

LJ: I was so exhausted after shooting that day.

李準基:那天拍完戏之后,我真是累坏了。

정석용: 누가 (영화를) 본 사람이... 저 부분에서 네[*공길]가 아예 안 울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말을 누가 하더라구. 모르겠어. 뭐가 옳은지는....

JS(7): Someone had said... the scene might have worked better if you (Lee Jun-ki) weren't crying at all here. I'm not sure which is better though...

郑石永(七):有人说.....如果你(指李準基)当时完全不哭的话,那一幕可能会拍得更好。我也不知道是不是会更好.....

이준기: 그렇게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감독님이 얘기하신 대로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

LJ: There was such a suggestion, but it came out that way when I acted on my emotions as the director told me.

李準基:是有人这么建议的,但我当时只是按照导演教我的,按照我当时理解的心情去演的。

정석용: 그렇지. 어찌 보면 (공길이 울지 않는다면) 좀 도박성이 있지.

JS(7): Right. It would've been somewhat risky without Gong-gil's tears.

郑石永(七):嗯。如果孔吉不哭的话,这一幕可能就麻烦了。

이준기: 지금 나오는 부분부터는, 저는 이전부터 울고 있었고...

LJ: Even before this part, I was already crying...

李準基:拍这一幕之前,我其实已经一直在哭了.....

감우성: scenario를 읽을 때도 그랬고, 촬영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이 장면을찍으면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울었어요. 처음 scenario을 받아서 봤을때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scenario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경우는 참 흔치 않죠. 너무나 좋은 scenario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장면을 전달할 때 놓치지않기 위해 참 많은 시간을 고민했던 scene입니다.

KW: When I read the script and when we started shooting, I cried so much... even to this day. I remember crying uncontrollably when I read the script for the first time. It rarely happens to get so emotional reading scripts. It made me realize what a wonderful film I'd been offered and I tried hard to convey that feeling in this scene.

甘宇成:当我读剧本和开始拍摄的时候,我哭得很厉害.....即使到了今天,我也仍然忍不住会哭泣。我只记得第

一次读到这个剧本的时候，就哭到无法控制。我一般很少在读剧本时如此情绪化的。也正因此，我意识到给我的是多么出色的一部电影，也因此我努力地把这种感觉表现在这一幕里。

장생 “궁에 와서는... 와서는...” (울음이 섞인 목소리).
Jang-saeng, “Then I came here... to the palace...”
长生, “于是我来到这这里……来到这皇宫里……”

이승훈: 이거 우성이가 참 잘한 거야. 오버하지 않고... 굉장히 (감정이) 북받쳤을 텐데, 그걸 누를 수 있다는 게...
LS(8): Woo-sung managed this scene wonderfully. Without overdoing it... even though it must have been very hard to suppress such heightened emotions...
李胜勋(八): 宇成将这一幕表现得非常好, 恰到好处……即使当时要抑制这种高扬的情绪一定非常困难……

장생 “이렇게 눈이 멀어 아래를 못 보니, 그저 허공이네 그려”.
“Anyway, I see nothing but an abyss now.”
“不管怎样, 现在在我面前的, 只是一个深渊。”

감우성: 다행스럽게도, 우리 공길 이준기군도, 이 scene의 중요성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있었고,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 잘 했는데, 응... 찍으면서 자꾸 드러나는 (공길의 연기의) 아쉬움 때문에, 제 연기를 하기에다 바빴는데 (공길에게) 그런 요구를 했어요. “학창 시절에, 어렸을 때, 엄마한테 대드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대든 기억이 있지않느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 하면서... 줄위에서 (공길의) 감정이 터져서 내지르는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 이준익 감독의 부탁으로, 감우성은 영화를 촬영하는 4개월 내내 이준기의 연기指導를 도맡아서 가르쳤다]

KW: Fortunately, our Gong-gil, Jun-ki knew the importance of this scene and did very well. He did very well, but... I couldn't help feeling unsatisfied (with Jun-ki's acting) occasionally even though I was busy enough with improving my own. And so I said to him, “Do you remember, during your school years, when you'd yell at your mother out of rebellion. Can you think of those days?” and so on... We worked together in order to bring out that feeling as Gong-gil yells at Jang-saeng on the rope. (* During filming, Karm Woo-sung took on the responsibility of coaching Lee Jun-ki, with request from the director Lee Jun-ik.)

甘宇成: 幸运的是, 我们的孔吉, 準基也知道这一幕的重要性而且做得很好。他做得非常好, 但……我不知怎的有时还是有些不太满意(对準基的表演), 虽然我当时忙着提高我自己的演技也忙得够呛。因此我跟他讲: “你记不记得, 你读书的时候, 由于叛逆心理, 对着你妈妈大吼大叫的情形? 你能回忆起那些日子吗?” 之类的东西……我们一起合作, 试图把孔吉在绳子上对长生大叫的感觉引出来。(在拍摄过程中, 在李导演的要求下, 甘宇成接下了教导李準基的担子。)

공길이 줄(綱)을 발로 밟겨 장생에게 자신의 存在를 알린다.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Gong-gil lets Jang-saeng know of his presence by stomping on the rope. (“I am here, are you there?”)
孔吉踩了踩绳子, 让长生知道了他的位置。(“我在这里, 你在那里吗?”)

이승훈: 나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
LS(8): I love it here.
李胜勋(八): 我非常喜欢这场戏。

정진영: 응. 저게 좋더라.
JJ: So do I.
郑镇永: 我也是。

이승훈: 줄의 울림이 확~ 전달되는 게...
LS(8): Conveying through the rope's vibration...
李胜勋(八): 感情通过了绳子的振动传达了出来……

감우성: 지금 보니까 (이준기군이) 참 대견스럽네요. 애석하게도, audition의 마지막 심사에서 2명의 후보가 남았을 때, 저는 이준기 군이 아닌 다른 후보를 추천했었습니다. 촬영은 어찌될지 알 수가 없죠.

예측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준의 감독님의 판단이 일단은 굉장히 옳으셨다... 그리고 (이준기군이)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 audition의 最終심사에서 탈락한 그 마지막 후보는 7월에 再연했던 연극『爾』의 공길(孔吉)이 되었음)

KW: Now that I see the film again here, I am very proud of Jun-ki. Unfortunately, I had voted against him during the audition. No one knows how things will turn out as the film is being made. I had my own prediction*... But I guess Director Lee's judgment was right... and Jun-ki turned out to be excellent. (*The other finalist who competed with Lee Jun-ki for the role became Gong-gil for the play "Yi" later.)

甘宇成: 现在在这里，又看了这部电影，我真为準基感到骄傲。遗憾的是，我之前在试镜时给他投了反对票。没想到电影后来会拍到这种效果。我自己预先也做了判断*……但我想李导演的判断才是正确的……而準基也最终证明自己是出色的。（*另一个与李俊基争夺角色的后来在戏剧“Yi”里扮演孔吉一角。）

이준기: 마지막날의 날씨가 참 좋았죠.

LJ: The weather was excellent on the last day of shooting.

李準基: 杀青那天天气好极了。

장생의 마지막 대사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 보자!”.

Jang-saeng's last line, "Let's meet again as clowns!"

长生最后的台词，“再生为戏子，再活一世！”

어린애처럼 웃는 연산의 얼굴.

Yeon-san's childish smile.

燕山稚童般的傻笑。

이승훈: (笑) 대단해, 대단해...

LS(8): (laugh) Great, great...

李胜勋(八): (笑) 太出色了，太出色了……

장생과 공길의 마지막 jump.

Jang-saeng and Gong-gil jump into the air.

长生和孔吉跃向天空。

감우성: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부채를 손에서 놓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고민했던 의지를 반영했던 장면. 웃으면서 부채를 손에서 놓습니다. 저만의 고민이었어요.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KW: In that last moment, I threw the fan. It's a scene that reflects all the thoughts and efforts I put into it – letting go of the fan with a smile. I hope audience was able to see it.

甘宇成: 在最后一刻，我丢掉了扇子。这一幕凝聚了我所有的思绪和努力……我微笑着抛掉了扇子。我希望观众们也注意到了这一点。

“설매제” 언덕의 광대들.

Minstrels running down the hill of “Seolmaejae”.

戏子们从“Seolmaejae”山上跑下来。

이준기: 야아... (촬영중에) 별별 얘기를 다 했었는데... “언제 끝나냐”고.

LJ: Ah... We would ask ourselves during filming... “When will this ever end?”

李準基: 啊……在拍摄时我们也一直在问自己……“这到底什么时候会结束？”

감우성: 다 끝났습니다. 영화촬영의 마지막날, 마지막 촬영일까지는 정말, 불투명한 “배우로서의 미래”에 불확실한 생활을 해 오던 저 개인에게 참으로 큰 희망과 행복감을줬던 촬영이었고, 정말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4개월의 촬영기간 동안 정말 평생동안 최고의 기억으로 남을 촬영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KW: It's over. The making of this film was a great hope and happiness for me, who has been an unstable actor living with uncertain future until then. The experience was almost perfection. Those four months

甘宇成: of shooting will always remain in my memory as the best days of my life. Thank you all very much.
已经结束了。这部电影的拍摄于我是一个巨大的希望和幸福，在此之前我是一个把握不了自己未来的不成熟的演员。这部电影的经历对我而言几近完美。那四个月的拍摄将永远是我生命中最美好的时光，一直存活在我的记忆里。非常感谢你们。

정진영: 어때? 다시 보니까?
JJ: So what do you think? Now that we've seen it again?
郑镇永: 你们有什么感想? 现在重看了电影?

이준기: 저는 매번 새로워요. 고생했던 것도 기억 나고. 맨날 짚신 신고 저렇게 옷을 입고다니는 것이 생활이 돼서, 막상 지금 영화를 보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영화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4달 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LJ: It feels new each time I see it again. I remember those difficult days. I had gotten used to walking around in Jipshin (old-fashioned shoes made with hay) and wearing those clothes. Now that I see the movie again, I feel like having gone back to those days. Not only do I remember the story of the movie but also all the difficulties during those four months.

李準基: 我每次看这部电影，感觉都很新鲜。还记得那些日子，我已经习惯了穿着Jipshin（旧时一种用干草做成的鞋）和那些衣服。现在再看这部电影，好像又回到了当时。我不只是记得剧情，我还记得那四个月里所有的艰辛。

이승훈: 근데 (그 고생한 기억이 지금은) 다 멋있어 보이지? (笑)
LJ(8): Those difficult days seem so cool now, don't they? (laugh)
李胜勋(八): 那些艰苦的日子现在看起来好酷哦，不是吗? (笑)

강성연: 정말 내 안에 장생도 있고, 공길도 있고, 연산도 있고, 녹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래요. 4명 모두, 육칠갑 모두, 내 안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관객들도 그랬을 것 같고. 그래요.
KS: I feel that we all have Jang-saeng, Gong-gil, Yeon-san, and Nok-su within us. Six, Seven and Eight, too. I'm sure the audience felt that too.

姜成研: 我觉得我们其实每一个人都有着长生、孔吉、燕山和绿水的缩影。这也包括了六甲、七德和八福。我想观众们也感觉到了。

정진영: 좋네, 영화가.
JJ: What a wonderful movie.
郑镇永: 多好的电影啊!

이준기: (笑)
LJ: (laugh)
李準基: (笑)

정진영: 재밌어요. 이상해. (笑)
JJ: It's fun. It's strange. (laugh)
郑镇永: 很有趣，很特别。(笑)

강성연: 이상해 정말. 계속 봐도 이상해.
KS: Strange indeed. Each time you see it, it's strange.
姜成研: 确实很特别。每次看，感觉都不一样。

이승훈: 아아... 광대로 지금도...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이나, staff들이나, 다 광대로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옛날의 저 모습이나, 정신은 다 같다는 생각이드네요. 광대의 정신은. 그래서 더 와 닿는게 아닐까? 그 속의 어떤 진실성 때문에 관객들도 흡수가 된 것 같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아, 내가 이렇게 좋은 영화에 참여를 했다니! (笑) 오오, 신이여, 이게 사실입니까. 아아, 기쁩니다.

LS(8): Ah... we're still like clowns... all the actors, staff members. There's something common in the reality of our current lives and the old lives shown in the movie. The spirit - mind - of the clowns. I wonder if that is why the story moves us so much? I think the truth within the story made it possible to draw in the audience and to identify with the characters. I can't believe I was a part of such a wonderful movie! (laugh) Oh God, is this real? Ah, I'm so happy.

李胜勋(八): 啊……我们还是像小丑哪样……所有的演员与工作人员。我们的现实生活和电影中表现出来的古代生

活还是有共通点的，那就是小丑们的精神—思想。我猜想这是不是就是这个故事为什么如此打动我们的原因。我想故事里的真实吸引了观众并使他们认可了这些角色。我真不敢相信我会是这部如此杰出的电影的一部分！（笑）天啊，这是真的吗？啊，我太幸福了。

유해진 : 네,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YH(6): Good job, everyone.

柳海镇(六): 干得好，诸位！

정석용 : 아, 오랜만에 봤더니 재밌네요. 재밌게 봤습니다.

JS(7): Ah, what a fun it was to watch it again.

郑石永(七): 啊，能再看一次真好！

정진영 :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JJ: Ah... excellent job, everyone. (* everyone cheering each other.)

郑镇永: 啊……干得好，诸位！（*所有人向彼此欢呼。）

이준기 :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笑)

LJ: Thank you all, ladies and gentlemen (to audience.) (laugh)

李準基: 谢谢你们，女士们和先生们。（向观众。）（笑）

이승훈 :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이 영화를 보게 될 기회가 이제는 없겠죠?

LS(8): I suppose we won't have another chance to watch the movie together again?

李胜勋(八): 我猜我们不会再有机会重温这部电影了。

정석용 : 그렇겠구나.

JS(7): I guess not.

郑石永(七): 可能不会了。

이준기 : DVD 다 소장하실 거잖아요. (笑) 벽에 걸어 두실 거예요?

LJ: We'll all have the DVD though. (laugh) Why don't you hang it on your wall?

李準基: 我们不是都有DVD吗？（笑）为什么不把它挂在你的墙上？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Everyone: Good job!

所有人: 干得好！

- THE END -

结束

[Back to Last page](#)